

6·25 전쟁 났던 격동의 해... 위기 넘기면 경제 살아난다

“정치 양극화·남북 대립... 혼란 가중”

경기도 김나인

한국 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전국 역술인이 본 庚寅年과 향후 10년 國運

“올부터 경제 꿈틀 2015년 국운 최고조”

전라도 지천명

2010년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운이 쇠퇴하는 기운의 중심에 서있기에 정치적 양극화와 첨예한 대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통상 압력, 남북한관계의 극대 대립으로 인한 긴장상태가 지속돼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음양오행상 올해 국운은 시퍼런 날이 서 있는 칼로 나무를 내리쳐 두동강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이며, 그 힘이 극도로 치닫게 되면 마찰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가 결별하고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첨예한 정쟁의 대립과 정투로 인한 극도의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해이다.

6월 치러지는 선거는 대단히 어렵고 혼탁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상모략과 비방 흑색선전, 선동 등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질 것이다. 집권당과 야당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 속에 이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의 투표

불참 등으로 최저의 투표율이 나올것이며 여당의 절반 승리가 예상된다.

남북문제를 살펴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삼대세습은 절대 불가능하며 권력이양 과정에서 양분화로 인한 집단지도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위한 미국 등 선진국의 초강력대응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주식시장 역시 불투명하다.

2012년 임진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며, 2013년 부터는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돼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설 날이 머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1981년 역술연구 입문
▲한국역리연구소 소장



<12지신상중 호랑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은 2010년 경인(庚寅)년을 기점으로 국운이 생하여 상승무드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여 2015년 을미(乙未)년을 정점으로 기운이 점점 쇠퇴하여 진행하다가 2019년 기해(己亥)년을 저점으로 운로(運路)는 회복하게 된다.

2010년 경인년에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호기를 맞아 시작하나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쇠락하며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한다(특히 음악계나 미술계의 인사들이 해당된다)

2011년 신묘(辛卯)년부터는 경제상황은 호황을 누리며 성장하나 정치는 이전부구(泥田鬪狗)현상이 심화되며 새로운 인물이 출현할 것이며 국가 간의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급변하는 기상변화로 의학계에서는 중풍과 뇌졸중 등 뇌질환 환자의 병고가 눈에 띈다.

2012년 임진(壬辰)년에는 잠시 사회전반에 걸쳐 약간의 침체가 보이다가 새로운 상승을 보인다.

2013년 계사(癸巳)년에는 사회개혁을 위한 물적·인적기반이 마련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파스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2014년 갑오(甲午)년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유층과 빈곤층, 상류와 하류, 남과 북, 수직관계가 극한으로 혼란스러울 수가 보이고 지각변화가 심히 나타나 인명이 다칠 수도 있다.

2015년 을미(乙未)년에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에서 안정과 성장을 이룬 후 국운은 상승기운의 정점에 도달하며 점차 정제하여 쇠락의 길을 걷는다.

▲천지통보연구원 이사
▲知天命철학원 원장

“陽의 기운 강한 해... 국운도약 시작”

충청도 백운산

2010년을 백호, 흰 호랑이의 해라고 말하는 까닭은 내년인 庚寅(경인)년이기 때문이다. 庚(경)은 금(金)의 기운으로서 그 색은 흰색이고, 寅(인)은 호랑이, 따라서 합치면 흰 호랑이의 해가 되는 것이다. 호랑이는 사신(四神, 청룡·백호·주작·현무) 중 유일할 실제동물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보면 흰 호랑이의 해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0년 경인년은 나라의 국운이 백성을 극하는 운이므로 국민들의 생활은 정부의 정책으로 조금 힘든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의 경우는 庚寅(경인)년 백호

의 해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국운 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경인년은 확실히 부정적인 해였다. 대표적으로 1950년, 그러니까 경인년에 6.25 라는 동족상잔의 처참한 비극이 있었다.

그러나 겁낼 일만은 아니다. 중기적 시련의 출발점이 되겠지만 그것은 미래를 향한 '성장통'이 시작된다는 점도로 받아들여야 할 바라는 마음이다.

인(寅)은 양이다. 인시(寅時)는 하루 중 새벽인 03 : 30 ~ 05 : 30 사이이며, 인

월(寅月)은 음력 1월, 양력 2월에 해당하여 1년 중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 된다는 입춘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 아침의 하루가 시작되는 때이다. 높은 바위위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는 동물의왕인 호랑이처럼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은 바로 희망이요 도약의 해인 것이다.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장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토정비결' 저자
▲백운동양철학연구원 원장(36년)

“정치신인 대거 등장... 변화 예고”

경상도 박정화

이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금융에 관한 취약성이 나타날것이고 봐야할 것이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혁신 작용이 이뤄지고 기존 인물들도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동반 변동이 부득이하게 따를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마침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어 상당히 많은 인물과 위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양목(陽木)의 기본 작용인 솟아오름, 성장, 뻗어나감 등의 기운으로 2010년에는 건축, 토목, 교육 등에 관한 변화가 활발해질 것을 알 수 있다. 또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금의 기운이 약한 흐름이 지속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흡기, 대장, 소화기 계통 건강에 시달릴 것임을 알 수 있다.

범띠해는 해석상 어느 해와 차이가 나는 점도 있다. 범 앞에서 약속을 하면 꼭 지킨다는 의미로 본다.

일종의 비방인데 자기 자신과 계획, 약속을 만들 때 범의 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범의 달인 정월의 중간, 대보름에 소망을 비는 습관을 보더라도 눈치를 쫓 수 있을 것이다.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

▲1985년 역술입문
▲부산 박정화 철학원 원장
▲부산 흥영TV 대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들이 승리 거머쥔다”

제주도 홍순혁

경인년은 크게 변화하고 역동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양(陽)의 기운으로 인해 매사 속전속결 일취월장의 흐름으로 변화한다. 머물러 있기 보다는 과감히 도전하고, 움직이는 역동성이 필요한 해이다.

올 한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 변혁과 발전의 통째로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제반의 측면이 비슷하다.

앞서가던 자가 뒤쳐지며, 뒤따르던 자가 앞서간다. 가지고 있던 자가 몽창 빼앗기기도 한다. 노력한 자는 급반등의 흐름을 타고, 허랑방방한

시절은 보낸 사람은 한 없는 나라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온 것이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사양하지 않는 호랑이처럼, 약자에게 관대한 사회적 흐름도 예상된다. 법률, 정치, 민생 제반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터이니, 서민들께 기대할 만한 한해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호랑이의 인자함도 있는 한해이니 든든하다.

즉흥성 있는 시도는 금물이다. '실력'과 '자신감'과 '전략'이 없이 시도하는 일들은 백전백패의 가속

한 한해가 될 것이다. 전부 언더가, 모두를 잃는 냉정한 운명의 여신의 때이다.

남북관계는 작년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걸음씩 진전하는 때이라면, 올해는 갈등 속에 속도감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60년 전 경인년이 뼈아픈 비극의 사건이 있었던 때였음을 상기해 보자. 우물쭈물 하지 말고 속전 속결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

▲토탈오스스티닷컴 사장

“지방선거 여당이 유리... 여성정치인 득세”

강원도 예지연

庚寅년은 6·25사변이 환갑을 맞는 해다. 참혹했던 전쟁의 잔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인지 무탈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육효(六效)로 국운을 점쳐보니, 산지박(山地剝) 5효가 동한 괘를 얻었다.

세궁(世宮)은 국가가 응궁(應宮)은 정세로 본다고 할 때, 세궁의 형손재(兄孫財)는 재원이 합을 하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크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회복은 따르겠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와 일시적으로 민생 경제의 숨구멍은 트일 정도는 된다. 무엇보다 庚寅년은 응궁의 사(巳)가 인사(寅巳) 형(刑)이 되어 획기적인 내각 교체로 관리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공무원 또한 내부 구조조정으로 관리자가 많이 바뀌게 되고 인사도 동이나 퇴출도 속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외국과 연결된 대기업은 살아나고, 중소기업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청업자들만 더 어렵게 된다.

근본은 응효에 합하여 세효를 극함(魁合)하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호랑이와 같이 기복이 많은 한해였













다.

그러나 2010년은 진취적인 변화로 발전이 예상되어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은 운이 열리고, 과거에 좋았던 사람은 오히려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성 정치가가 득세하게 되며,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낙선이 많이 예상되고 반면 여당의 여성 정치인은 두각을 나타내어 득세할 조짐이다.

▲인터넷 사주카페 '설 예지연' 운영
▲예지연역학교실 원장

■知天命이 보는 경인년 띠별 운세

 子(쥐) 쥐띠는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고 서서히 진행하면 만사가 평탄할 것이다. 가내식구들의 건강은 잘 챙기고 형제 및 자식 간에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면 가정과 대소간에 분쟁은 없다.	 丑(소) 소띠는 생소한 길을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솜털이 터진 듯한 기분도 있으리라. 혹 자녀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좌우를 잘 살펴가 진행하면 흉사는 없다.	 寅(호랑이) 호랑이띠는 자신이 하는 일에 一進은 있다. 육친의 건강과 주변을 잘 살피고 가야 한다. 인내하고 굳건하게 견디면 큰 일은 없이 무난히 지나갈 수다.	 卯(토끼) 토끼띠는 외형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결과 좋다. 우연한 좋은 기회가 이르러 정확히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되어 가나 충분한 자기확보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은 되도록 삼가해야 심상이 평안하리라.	 辰(용) 용띠는 모든 것을 새롭게 점검하면 좋다. 새로운 희망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오래 만에 음지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다가올 것이다. 좋은 기회를 얻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 하며 확정은 금물이다.	 巳(뱀) 뱀띠는 생기가 발신하고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요행은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행문제는 심사숙고 해서 하라.
 午(말) 말띠는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얻는다. 긴 안목으로 신중히 협조를 검토하라. 또한 단독 행동은 삼가고 요행은 금물이다. 속단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未(양) 양띠는 신중하게 처신하면 뜻밖의 호기를 맞는다. 중간인이 약간의 어려움을 주더라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행하면 가내가 평안하고 자신의 발전도 있다.	 申(원숭이) 원숭이띠는 吉多禍小하는 형상으로 변화 속에서 새 재물을 득하는 호기가 발생한다. 부부간에 화목함을 조성하라. 기정이 화목하면 외부의 일도 문제가 없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심상의 안정을 얻으라.	 酉(닭) 닭띠는 흉사는 없고 길사는 다발하는 형상이다.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면 속속히 득이 된다. 미운사람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모수가 있다. 타인의 속임수도 무난하게 지나며 수성이 오히려 상책이다.	 戌(개) 개띠는 희망적인 계획을 세운다. 급진하지 말고 정진하라. 큰 고역은 없고 불씨가 움튼다. 아는 길도 물어가는 신중함을 지니면 만사가 튼튼하다. 우선에 만족하지 말고 내용 점검이 중요하다.	 亥(돼지) 돼지띠는 잃었던 자식을 찾은 기쁨으로 그 결과는 대 만족이다. 새로운 계획을 펼쳐가는 운이나 급진 말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옛 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형제 근친자간에 우애하고 화목하여 재물을 지키라.